

실모 피드백 학습지 이용 예시

<p>한수 모의고사 파이널 2회 [19.06.15]</p> <p>72점 (88/81/76) [독서 3에서 찍어서 한 문제 맞음]</p> <p># PLANS BEFORE TES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는 문제, 맞아야 하는 문제는 무조건 맞추기- 적절한 시간 분배- 문학 ; 빠르고 정확한 선지 판단	<p>한수 모의고사 6월 평가원 대비 3회 [19.09.10]</p> <p>79점 (85 / 77) [찍맞 X]</p> <p># PLANS BEFORE TES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9월 모의고사와 한수 파이널 3회 처럼 이상한 실수들만 하지 말자. 갑자기 실수가 늘었다. 정확도가 매우 낮아졌다.- 독서를 풀기 위해 몰아치기 <p># PERFORMANCES</p>
<p>☐ 2019.09.10 17:33  </p> <p>한수 모의고사 파이널 3회 [19.09.10]</p> <p>74점 (85 / 77) [찍맞 X]</p> <p># PLANS BEFORE TEST</p>	<p>☐ 2019.09.03 22:10  </p> <p>20.09 국어 피드백피드백피드백</p> <p>2. 문학 (0) 25+</p> <p>이젠 문학을 첫 번째로 보는 거에 익숙해졌기에 이번 9월에도 당연히 문학을 먼저 보았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이기에 당연히 떨렸다. 그래서 문학 첫 번째 세트인 [16~20] ; "상춘곡" "고산구곡가" 는 완벽한 EBS 연계이고 전문을 다 봤기에 다 아는 내용이었지만 해매었다. 17 19 20은 답이 보였지만 확신이 안 갔다. 평소처럼 허용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했고 확신은 안 갔지만 다 맞았다.</p>

작년에 실모를 풀며 위와 같이 피드백할 내용들을 타이핑하곤 했습니다.
이를 제가 만든 양식에 맞춰서 옮겨 보았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꼼꼼히 할 필요는 없어요!
잘 해서 굳이 피드백 안해도 되는 건 안해도 됩니다.

제 흔적들을 보시며 어떻게 해야겠다는 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한수 모의고사

6월 평가원 대비 3회

[19.09.10]

79점

[85 / 77 / 70]

PLANS BEFORE TEST : 이전의 [PLANS AFTER TEST](#)를 반영할 것

- 9월 모의고사와 한수 파이널 3회 처럼 이상한 실수들만 하지 말자.
갑자기 실수가 늘었다. 정확도가 매우 낮아졌다.
- 독서를 풀기 위해 몰아치기
- 아는 문제, 맞아야 하는 문제는 무조건 맞추기
- 적절한 시간 분배
- 문학 ; 빠르고 정확한 선지 판단 → 거시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PERFORMANCES

문학	화작	문법	1차 마킹	>	독서1	독서2	가채점표	>	독서3
26	13	8	2		10	15	X		6

모두 연계 지문이었다. 현대시를 제외하고 모두 연계체감이 되었다. 현대시는 제목만 기억이 났다. 지문을 읽으며 표현법과 시의 상황 등을 연계 공부 이력과 <보기>를 통해 빠르게 캐치하곤 했는데 이번엔 그러지 못 했다. 그 결과 완전히 꿰뚫고 있는 내용임에도 틀린 문제가 많이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 거리"는 틀리면 안 되는 작품임에도 4 문제 중 두 문제나 틀렸다. 푼 순서대로 분석해보자.

[16~20] ; [안서우, "유원십이곡"] [이태준, "고완"] (1)

#18 (2)

내용일치 문제다. 지문을 그저 차분히 봤다면 틀릴 수가 없는 문제. 연계효과를 누린다고 해도 완벽하게 알고 갈 수는 없다. 읽어야 할 것은 읽자.

[25~28] ; [오정희, "중국인 거리"] (2)

#26 (2)

헛갈릴 만한 문제. 매력적 오답은 내가 쓴 답인 1번으로 예상된다. '전진'의 의미가 '싸움터에서 이는 먼지나 티끌'이기에 1번을 맞는 선지로 판단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야한다. 전진은 굴뚝의 연기가 전쟁으로 인한 연기와 비슷하다는 걸 표현하지, 전쟁으로 황폐화된 도시를 표현하지는 않는다. 무엇을 어떻게 비유하는가를 민감하게 반응했어야 한다. 2, 3, 4 번 선지는 명백히 틀렸다. 5번 선지가 답이다. 근거가 명확하고 단순하다. "나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종이 뭉치를 끌었다." 굳이 *문을 잠근 뒤* 라고 쓴 이유가 무엇인가? 뭔가 들키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허용가능하다. '들키다'가 아닌 '보여지다' 등으로 봐도 맞지 않는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약간의 차이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이는 선지에서 결정해준다. 우리가 생각한 서술어와 선지가 선언한 서술어간의 공통감이 크다면 그 미묘한 차이는 선지에 맞추기만 하면 된다. 1번 선지가 1번이고 답 선지가 5번이기에 오답을 고른 학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8 (3)

난 틀리면 안되는 문제. 시험 때 지문을 다 읽었고 '중국인 거리'가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을 캐치했었는데 1번을 틀리다고 하지 않고 넘어갔다. 얼마나 집중력이 낮았는지를 보여준다.

[43~45] ; [작자 미상, "황월선전"]

#45 (1)

고전소설은 서술되는 방식이 주어와 목적어 등을 명확히 하지 않고 같은 어휘라도 그 쓰임이 지금과 조금씩 달라 문장 분석을 통해 내용을 정확히 알기 힘들다. 그렇기에 거시적으로 상황을 구성해서 파악해야 문제풀이에 유리하다. 이러한 점이 부족하여 틀렸다.

화작

(0) 13min

본인이 다 맞고 잘 풀었다면 굳이 안써도 되겠죠?

문법

(0) 8min

본인이 다 맞고 잘 풀었다면 굳이 안써도 되겠죠?

[21~24] ; 독서 1 "도덕적 판단" (1) 10

첫 번째 독서 지문은 '도덕적 판단'에 관한 지문으로 상대적으로 쉬운 지문이다. 하지만 반응의 측면에서 철저하게 실패했다. 이항대립이 대놓고 나와있었는데 이를 눈치채지 못 했다. 정보량이 그리 많은 편도 아니다. 물론 다른 철학지문보다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 불친절하긴 했다. 사실 매우 불친절하다. 절대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대립되는 상위 개념들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다시피 하다. 정보간의 유기성을 스스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제가 생략되어 있고 그 전제를 묻는 선지가 해당 문제의 정답선지로 나왔다. 그 문제를 틀렸는데, 지문에 있는 내용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문에서 언급해야 하는데 없는 내용이라면, 맥락에 따라 스스로 구성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32~37] ; 독서 2 "통화 정책" (3)

작정하고 낸 문제다. 어휘 문제 없이 6문제가 나왔다. 지문의 정보량도 길이도 19.11.우주론 지문보다 많다. 우주론 지문은 인문+과학 지문이기에 스키마 형성이 잘 되었지만, 이 지문은 이항대립적인 스키마를 형성하는 것이 크게 유리하진 않은 지문이다. 하지만 돌파구는 있다. 이런 지문은 사실 거의 고전이다.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내용과 구조라는 것이다.

독서 3 (1) 6

문제 빠르게 스캔하고 확실히 풀 수 있는 것만 풀었다.

PLANS AFTER TEST : 다음 [PLANS BEFORE TEST](#)에 반영할 것 / 다음 실모 응시 전까지의 학습 계획 수립

- 가장 중요한 건 시험 당시의 맑은 정신! 전날에 최소 6시간 이상은 자야 한다. 되도록이면 7시간.
- 현대소설 기출 <보기> 문제 출제 양상 다시 분석
- 독서 '5분 짝기' 가다듬기

PLANS BEFORE TEST : 이전의 [PLANS AFTER TEST](#)를 반영할 것

- 문학 헛갈리는 선지는 무조건 넘어가자. omr 마킹할 때 다시 볼 것!
- <보기>의 상황과 화제를 명확하고 간단히 잡아야 한다. 문학과 독서 모두!
- 화작의 <보기>가 복병일 수 있다. 방심 금물
- 문법 : 절대 몰라서 틀리는 문제는 없다. 차분히 판단.

PERFORMANCES

문학	화작	문법	1차 마킹	>	독서1	독서2	가채점표	>	독서3
20-	13	10+	1~2		25		2		8~9

시작할 때 갑자기 옆사람의 알람이 울려서, 정신 차리느라 시작하고 1~2분은 버렸다.
이번엔 가채점 표를 적었다. 가채점표 그거 잠깐 적는다고 내가 풀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더라.

문학

1. 문학 (0) 20-

처음으로 인호t의 문학 풀이 관점을 도입해 본 시험.

문학에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풀면서 아직 체화할 여지가 많이 남았다고 느꼈다. 판단하기 애매한 선지도 있었고 어떤 문제에서 지문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좋지는 않았다. 하지만 침착하게, 논리로 풀다 보니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 굉장히 빨리 풀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지금 내가 이 시각에 여기에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16~18] ; [이청준, "자서전들 쓰십시다"] (1)

별 문제 없었다.

#17 (2) "적절한 것은?"

; (~일반적인 상황 -> 내용일치 판단) -> 문학 고난도.

"보다 큰 죄악" 이란 말을 <보기>의 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틀릴 수 있는 문제. 인용은 필히 돌아가서 주변 맥락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줌.

[24~27] ; [박지원, "민옹전"] (0)

별 문제 없었다.

[32~36] ; [조우인, "자도사"] [이첨, "원수"] (0)

화작

본인이 다 맞고 잘 풀었다면 굳이 안써도 되겠죠?

문법

본인이 다 맞고 잘 풀었다면 굳이 안써도 되겠죠?

독서

급하게 풀 땐 어떻게 풀지?

; 독서 강자성체 마지막 문단

<보기> 내용을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

45번 (1)번 선지 고치기

-> 쓰레기 선지 판단하여 고치기 with 좋은 선지란?

심신이원론 지문의 문제들 출제 원리

답의 근거 - 어떤 논증구조?

문학 작품 훑는 방법

; 문단마다 KEYWORD & KEYPHRASE

PLANS AFTER TEST : 다음 [PLANS BEFORE TEST](#)에 반영할 것 / 다음 실모 응시 전까지의 학습 계획 수립

문학

- 전제와 결론의 개연성
- 작품의 갈래가 가지는 특성과 선지간의 부합
- 선지간의 연계성
- <보기> 와의 내용일치

- 독서 '5분 짝기' 가다듬기 : 장지문 구조 분석

- 기출의 대립코드 추출 & 정리

아래는 실제로 20학년도 9평을 치른 직후 피드백한 내용들입니다. 수정을 거의 안 거치고 보여드립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했음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오랜만에 다시 보니, 이 때 이렇게 공부한 경험들이 지금의 'GIST 해리케인'을 만든 것 같습니다.

20.09 국어 피드백

84점

1. 문학 (0) 25+

이젠 문학을 첫 번째로 보는 거에 익숙해졌기에 이번 9월에도 당연히 문학을 먼저 보았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이기에 당연히 떨어졌다. 그래서 문학 첫 번째 세트인 [16~20] ; "상춘곡" "고산구곡가" 는 완벽한 EBS 연계이고 전문을 다 봤기에 다 아는 내용이었지만 해메었다. 17 19 20은 답이 보였지만 확신이 안 갔다. 평소처럼 허용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했고 확신은 안 갔지만 다 맞았다. 20번은 <보기> 문제로, 이미 알고 있는 배경 내용이었다. 작품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어서 도움이 되었다. 19번은 한 번에 보이지 않아 문학을 한 번 훑은 뒤 1차 마킹하면서 다시 풀었고 그 때 답이 보여 맞았다. 한수모의고사 1회에서도 같은 경험을 했기에 맞을 수 있었던 것 같다. 확신이 가지 않아도 가장 허용이 안 되는 게 있을 것이다. 그게 답일 확률이 높다.

두 번째 문학 세트 [32~34] ; "장끼전" 또한 연계지문으로 전문을 봐두었다. 물론 내가 못 본 지문이지만 전체 줄거리를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익숙하게 풀었다.

세 번째 문학 세트 [35~37] ; "청명" "초록 바람의 전언" 은 후자만 연계였다. 그렇다 해도 "청명"은 그 특징이 너무나 대놓고 드러난 시여서 쉽게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 문학 세트 [42~45] ; "자서전들 쓰십니다" 또한 연계였다. 아직 정리를 하지 않은 지문이지만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기에 이것 또한 쉽게 풀었다. <보기>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 <보기>의 내용 또한 작품 이해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내용이어서 문제를 푸는 데에 큰 도움을 받았다.

[16~20] 에서 해매느라 10분을 쓴 게 평소보다 약간 더 시간이 걸렸던 원인인 것 같다. 최인호t의 해설을 보니 선지와 <보기>만으로 빠르게 문제를 풀고 있었다. 다음 시험 때엔 작품 장르의 특성상 말이 안되는 선지를 지워보는 연습을 해봐야겠다.

2. 화작 (1) 10+

피램 쌤이 가르쳐 주신 대로 빠르게 읽고 빠르게 풀려 했다. [4~5] [6~7] 로 지문이 나누어져서 약간 당황했다. 또 [8~10] 지문은 정보량이 많은, 거의 옛 기출 독서 보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빨리 읽는 것을 포기하고 꼼꼼히 읽고 풀었다.

9번을 어이없게 틀렸다. 비문학 지문의 <보기> 는 항상 무엇을 말하는지를 파악해야 하고 내가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하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이는 문제에 나와 있으므로 꼼꼼히 문제를 읽어야한다. 어쩌면 지문보다 꼼꼼히 읽어야 하는 건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화작은 특히 그런 것 같다.

3. 문법 나머지 (1) 6

[11~12] 가 지문형으로 나왔다. 중세국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마지막에 중세국어가 한 두 문단으로 몰아서 나와있는 게 아니라 현대 문법을 소개하고 중세 문법을 주로 다루는 느낌이었다. 이 또한 빨리 읽는 것을 포기하고 천천히 꼼꼼하게 읽었다. 정보량이 몰아서 있는 게 아니라 독해하고 스키마를 구성하기는 편했지만 정보량은 만만치 않았다. 11번에서 빨짓을 조금 했다. 지문형 문제에서 긴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건 맞는 것 같다. 앞으로 지문형 문법 문제를 다룰 때는 의식적으로 차분해지도록 해야겠다.

13번 문제를 어이없게 틀렸다. 내가 아주 잘 정리해둔 내용이어서 자신있게 풀었는데 시험장에서 뭔갈 착각한 건지(기억이 안 나서 뭘 착각했는지 모르겠다.) 뻘히 보이는 답 2번을 놔두고 3번을 체크했더라. 오답률이 높은 문제이지만 나에게서는 강점인 문제였기에 너무 아쉽다. 그저 많이 경험을 해보는 수밖에.

4. 1차 OMR 마킹

5. 독서 1, 독서 2 (2)

시험 전에 문제를 훑어 보면서 법 지문이 제일 짧길래 법 지문을 먼저 풀자는 생각을 했다. GPS지문은 내가 아는 내용이기에 두 번째로 풀기로 했고 가장 긴 지문인 역사는 평가원에서 힘을 준 것 같아 가장 마지막에 푸는 게 나아보였다.

[27~31] ; 법 - 점유 소유 (0 ; 30번 찍어서 맞음)

짧지만 가장 어려운 지문. 풀다가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웠다. 겨우 정신줄 잡고 읽었다. 지문 독해하는 데엔 5분 조금 넘지 않았을까 싶다. 27 28 29를 가까스로 풀고 30을 풀 자신이 없어 나중에 마킹할 때 3으로 찍었다. (그리고 맞았다.)

-지문 분석-

첫 번째 문단은 점유와 소유에 대해 설명한다. 도입부터 질문을 해주어 어떻게 접근을 해야하는지를 제시해준다.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이 덕분에 점유와 소유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게 수월해졌다. 실제로 궁금했다. '아 법에선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다른거지?' 사실 상의 지배 상태, 그리고 사용 수익 처분 할 수 있는 권리.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X. 아, 약간 영혼의 지배와 육체적 지배 비슷한 것 같다. 점유가 약간 더 상위 개념인 것 같다는 느낌이 온다. 솔직히 여기까지만 궁금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화작이지 독서가 아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가자.

두 번째 문단은 점유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한다. 직접 점유와 간접점유로 나누는데, 직접 점유란 단어를 보자마자 간접점유를 찾았고 이를 확인한 뒤 직접 점유는 물건을 가지고 있고(즉, 한 사람이 점유와 소유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상태) 간접 점유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다. 실제 내용도 비슷하다. 추가로, 당연하지만, 간접점유는 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예상한 내용이다. 문단의 끝 부분에서 약간 내용이 바뀐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점유가 누가 소유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고? 어떻게? 점유자가 항상 소유자는 아닌데? 여기서부터 약간 혼란스러웠다. 일단은 흐름을 따라가보기로 했다.

세 번째 문단부터 눈치를 썼다. 만만치 않은 지문이다. 정보량이 많다. 소유권 양도에 대해서 설명한다. 처음엔 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을테니 소유권 양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럽긴 하다. 여기서부터 내가 주도하여 독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들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양수인'과 '양도인'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 차분히 보자. '양수인'은 받는 사람, '양도인'은 주는 사람이다. 간단하네. **이런식으로 티키타카 하는 내용을 파악할 땐 누가 주고 누가 받는지를 명확히 해야한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간단하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이 인도되는 경우는 물건을 주는 '점유개정', 물건의 지배권을 주는 '반환청구권 양도'로 나뉜다.

네 번째 문단도 혼란스럽다. 어렵다. 계속 거를 타선이 없다. 그래도 약간 도움을 주는 건 첫 문단의 첫 문장처럼 질문형으로 시작한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근데 솔직히 질문도 뭘소린지 모르겠다. (이걸 왜 궁금해하는지도 모르겠다.) 이 문장이 성립하려면 소유자가 아니어도 양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소유'의 정의는 '어떤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첫 문단에서 설명하였다. 양도한다는 것은 처분한다는 말과 같은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가? 혼란스럽다. 여기서 또 혼란을 더하는 것은 **'양도'와 '처분'은 같은 개념인지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직접 추론해야 하는 것인데 지문에 그 근거가 없기에 이전에 사전으로 이를 확인해 본 사람이 아니면 확신이 불가능하다. 일단 같은 개념이라 치고 독해를 지속해보자.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여기서 나는 정말 이해가 안됐다. 그럼 원래 소유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걸 법으로 허용하면 안되지 않는가? 근데 이걸 부정하면 이미 대가를 지불한 양수인은 또 어떻게 해야하는가? 그렇기에 '선의'라는 말을 붙인다. 고의가 아니었고 약의가 아니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그래도 솔직히 이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기에 글의 의도대로 이해하더라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문단의 마지막 두 문장에서 '예외'를 설명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다.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 다행스럽게도 반환청구권 양도만 허용이 된다. 다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뭐가 다른지 짚어보자. 점유개정은 실질적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점유개정으로 선의취득을 한다면 양수자가 점유와 소유를 하게 된다. 반환청구권 양도는 돌려주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C가 점유하고 있는 a라는 동산을 소유한 A가 B에게 a를 빌려주었다고 하자. C가 D에게 반환청구권 양도를 했다면 B는 D에게 a를 돌려주어야 한다. B는 어리둥절 할 것이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고 한다. 문단이 이렇게 끝났으니 문단을 정리해 보자.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기 전 양도인이 소유자인지를 충분히 살펴 보았다. 양수인은 양도인이 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렸고 양도인과 소유권이전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양도인은 소유자가 아니었다. 양수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이다. 돈 등의 대가를 주고 소유권을 얻었는데 사기를 당한 기분이 들 것이다. 여기서 잠깐 본문의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의 의미를 살펴보자. 주의를 왜 하는가? 주의를 꼼꼼히 무언가를 살피지 않을 시 그 무언가로 인해 피해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문이 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니, 여기서 피해는 '범법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정리를 해보면 '충분히 주의를 하는 것'은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함'이며 이는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박탈 당하거나, 그 계약은 무효다'라는 의미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 문단은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한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에 관해 범법을 저지를 시, 법이 해주는 배려**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 문단은 예외 속의 예외까지 설명한다. 어렵다. 이 문단을 제대로 독해하려면 생략되어 있는 전제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내용이 처음 보는 내용이더라도 항상 '예외'를 명시하는 법의 특성을 알기에 그 전제를 빠르게 찾을 수 있었겠지만, 대개의 경우 이 문단이 '예외'

를 의미한다는 것도 알지 못 할 것이고 '예외'에 해당한다는 감이 와도 '전제'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잘 하지 못 할 것이다. 어렵다 어려워.

마지막 문단이다. 끝까지 어렵다. 단 한 문장도 버릴 게 없는 지문이다. 이런 지문은 필터링이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또 '예외'다. 선의취득이 아예 안 되는 대상도 있다고 한다. 이번 예외는 위의 예외와 좀 성격이 다르다. 위의 예외는 '방법'에 관한 예외라면 이번 예외는 '대상'에 관한 예외다. 형식과 내용에 관한 이항대립이다. [(ㄴ)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ㄷ)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여기서도 이항대립이 나타난다. 그냥 기억해 두자.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선의 취득도 정도가 있다. 그런 내용이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문단은 첫 문장에서 이항대립을 눈치챘으면 쉽게 읽히겠다. 내용이 쉬워서라기 보다는 정보량이 적어서 그렇다.

구조를 아주 잘 숨겨냈다. 어렵고 생소한 법률용어와 사례, 불친절한 설명으로 학생들은 이해하기에 바빠 구조를 찾을 여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어렵다 어려워.

[38~41] ; 기술 - 스마트폰의 다양한 위치 추적 기술 (2)

이 지문이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제일 쉬운 지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급하게 풀어서 그런지 두 문제나 틀렸다. 지문 독해는 크게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문제를 풀 때의 태도인 것 같다. "빠르게 풀고 넘어가자"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는 오늘 화작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시험 시간을 얼추 맞출 수 있는 것 같으니 이번에도 그래야 한다는 압박감? 비슷한 것 같다. 아직 나의 상태에 적응이 안 된 것 같다. 이번 40번과 41번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다. 해결책으로 꾸준한 실모 연습이 맞는 것 같다.

문제를 풀 때 솔직히 지문 독해가 완벽히 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이 지문의 모든 문제에서 답이 5번인 것을 보고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난 빨리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야 했기에 그냥 지나칠 수 밖에 없었다. 솔직히 그 때는 그게 현명했다. 거기서 시간을 떠 썼어도 시험장이라는 그 부담감 때문에 지문 독해를 다시 제대로 했을지 의문이고 다 맞을지도 의문이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지문에서 시간 부족으로 한 문제를 넘긴 것 빼고는 다 맞았으니 뭘 하든 최소한 제로섬이었을 것이다.

지문 구조는 매우 단순하다. 구조적으로 크게 의미도 없다. 내용도 단순하다. 그저 정보의 나열이다. (41번 문제는 조금 어렵긴 하다.)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 스마트폰은 다양한 위치 측정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지형 환경에서 위치를 측정한다. 이 지문의 핵심이다. '스마트폰'을 계속 인지하고 있으면 상황이 더 구체적으로 그려질 것이고 '다양한 위치 측정 기술'이 '여러 지형 환경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생각하며 읽으면 더욱 예측이 잘 될 것이다. 위치에는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가 있다. 절대 위치는 위도, 경도 등으로 표시된 위치이고. 상대 위치는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위치이다. 이항대립을 대놓고 줬다. 앞의 법 지문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다. 첫 문단만 봐도, 지문의 길이와 문장의 길이만 봐도 이 지문은 평가원이 힘을 뺐 지문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 두 문제나 틀린 나는 진짜 반성해야 한다.

두 번째 문단은 크게 정보량이 없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 나열을 단순 나열로 받아들이지 말 것'이다. 솔직히 그냥 읽고 넘겨도 된다. 하지만 지문을 쓸 때 쓸데 없는 정보는 주지 않으며 뜬금 없는 정보도 주지 않는다. 정보들의 나열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인과관계'나 '논증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GPS는 위치 오차가 시간에 따라 누적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파 지연 등으로 접속 초기에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큰 오차가 발생하고 실내나 터널 등에서는 GPS신호를 받기 어렵다. 여기서 인과관계를 찾기 위해선 '전파'에 주목해야 한다. '전파'를 이용하기에 전파 지연 시에 오차가 생기고 실내나 터널 등에서 전파 신호가 안 잡히는 것이다. IMU는 내장된 센서로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하여 위치 변화를 계산하고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위치를 구한다. 그럼 GPS는 '절대 위치'를 구하는 것이겠구나. GPS가 위성을 이용한다는 것을 우린 배경지식으로 알기에 허용가능하다. 단기간 움직임에 대한 측정 성능이 뛰어나지만 센서가 측정한 값의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위치 오차가 커진다. 왜 그럴까? 이는 시험장에서 생각하기엔 약간 힘들 수도 있다. 근데 쉽다. 방금 전 결과를 기준으로 지금을 인식하고 방금 전의 오차와 지금 생기는 오차가 더해지기에 오차가 커지는 것이다. 이 두 방식을 함께 사용하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여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정말 뻔한 마무리이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약간 화제가 전환된다. '비콘'이라는 기계를 이용한다는 내용이다. 윗 문단에서 두 방식을 절충해서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니 비콘은 이를 적용한 기술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 보자.

한편 실내에서 위치 측정에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는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을 활용하는 기술이 있다. '블루투스 기반'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온다. 위의 '전파'를 이용하는 GPS와 뭔가 대립되어 보인다. 참고로 뒤에서 블루투스가 정확히 뭔지 설명은 안해주기에 그냥 넘어가도 되긴 한다. 하지만 이런 단어에 주목해야 하는 이항대립적 구조의 지문이 많으므로 이에 반응하는 것은 매우 건강하다. 비콘은 실내에 고정 설치되어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기기이다. 뭔가 고정되거나 규칙적인 특징을 보이는 것은 기술지문이라면 특히 주목해야 한다. 비콘들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지만 비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벽과 같은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 비례관계다. 이해하고 체크해두자. 다행히 쉽다. 단말기가 비콘 신호의 도달 거리 내로 진입하면 단말기 안의 수신기가 이 신호를 인식한다. 그렇다. 이 신호를 이용하여 2차원 평면에서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대놓고 다음 내용을 소개해준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문단부터 마지막 문단. 여기서 부터 네 번째 문단부터 순서대로 읽기 보다는 아래 문단도 읽어보면서 잠깐씩만 왔다갔다 해보자. 윗 문단의 마지막 줄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라고 했으니 기본적으로 나열일 것이고 대비되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 네 번째 문단부터 마지막 문단인 여섯 번째 문단까지 그냥 설명이다. 각 문단마다 기법 하나씩 설명하고 있다. 문단도 짧다. 분명히 어렵지 않을테니 쫓지 말고 해야할 것을 하자. 각 문단은 각각 '근접성 기법', '삼변측량기법', '(ㄱ)위치 지도 기법'을 설명한다.

근접성 기법은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해당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한다. 여러 비콘의 신호를 수신했을 경우에는 신호가 가장 강한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한다. 그렇다. 대비코드를 찾으려고 해도 딱히 찾기가 힘들다.

삼변측량 기법은 3개 이상의 비콘으로부터 수신된 신호 세기를 측정하여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로 환산한다. 각 비콘을 중심으로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고, 그 교점을 단말기의 현재 위치로 정한다. 교점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경우에는 세 원에 공통으로 속한 영역의 중심점을 단말기의 위치로 측정한다. 어렵지

않다. 그냥 읽고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원을 무엇을 기준으로 그려야 하나냐는 것이다. 이걸 놓치면 41번 지문을 풀 수가 없다. 만약 휴대폰을 기주능로 원을 그린다면 마지막 문장이 있을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빠르게 사고를 전환하자. 비콘을 기준으로 원을 그리면? 그렇다면 마지막 문장이 있는 게 납득이 된다. 만만하게 생긴 애가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있었다. 내가 먼저 찔러 버렸으니 이제 안심이다.

[(ㄱ) 위치 지도 기법]은 측정 공간을 작은 구역들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 주위에 비콘들을 설치한다. 기준점 주위에 비콘을 설치한다? 뭔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진 않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어는 어떤 영역이든 간에 '주관을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해라. **깊이있는 이해와 주관의 개입은 엄연히 다른 것이니 항상 의식적으로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비콘들이 송신하여 각 기준점에 도달하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한다. 이 신호 세기와 비콘의 식별 번호, 기준점의 위치 좌표를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위치 지도로 기록해 놓는다. 이 작업을 모든 기준점에서 수행한다. 특정한 위치에 도달한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신호 세기를 측정한 뒤 비콘의 식별 번호와 함께 서버로 전송한다. 서버는 수신된 신호 세기와 가장 가까운 신호 세기를 갖는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 이 기준점의 위치를 단말기에 알려 준다. 솔직히 할 말이 없다. 공통적인 대비 코드를 찾으려 해도 그런 게 딱히 없다. 해봤자 '비콘의 위치를 자신의 위치로 삼는가?'의 유무 정도?

위에서 언급한 몇가지 독해 원칙만 제대로 적용했다면 무리 없이 모든 문제들을 풀었을 것이다. 38, 39, 41은 단순 내용일치 문제이고 41도 '삼변측량 기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만 했다면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다. 쉬운 내용이고 정보량도 적다. 하지만 '어떻게' 독해를 했는가에 따라 이해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개 있었다. 이런 면에선 좋은 것 같긴 하지만, 한편으론 구조적인 측면에서 너무 단순하여 예측하며 읽은 학생에겐 약간 허무함을 안겨 줄 수 있는 지문이었다.

6. 가채점 표 작성

성공! 이번 시험에서 성취한 성과들 중 하나!

7. 독서 3 (1)

[21~26]

마지막 독서. 이 또한 길이만 길지 내용은 매우 쉽다.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시간이 10분 내외로 남았던 것 같은데 1분만 더 있었다면 분명 다 맞았을 지문이다.

